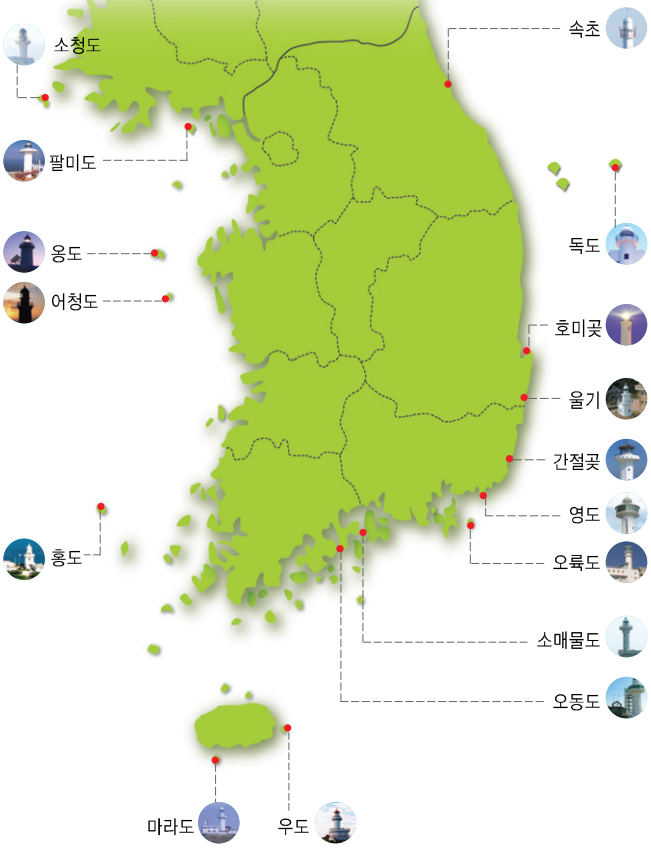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 16경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www.mltm.go.kr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 16경



Contents

	발간사	3
1	간절곶 등대	4
2	독도 등대	6
3	마라도 등대	8
4	소매물도 등대	10
5	소청도 등대	12
6	속초 등대	14
7	어청도 등대	16
8	영도 등대	18
9	오동도 등대	20
10	오륙도 등대	22
11	옹도 등대	24
12	우도 등대	26
13	울기 등대	28
14	팔미도 등대	30
15	호미곶 등대	32
16	홍도 등대	34
	바다현장	36

발/간/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뱃길을 안내해 주는 한 줄기 불빛!

거친 바다, 긴 항해의 여정 속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등대는 항해자에게 안도감, 반가움을 주는 안식처의 영원한 불빛입니다.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의 등대를 자연친화적인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등대를 배경으로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모든 이들이 "꼭 가보고 싶은 곳,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 16경"**을 선정하여 소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100여 년 동안 간직해온 등대의 역사와 특유의 건축양식, 잘 조화된 절경과 등대 고유의 서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곳을 주변 관광지와 교통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제 낭만이 깃든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 16경"**을 찾아 떠나보십시오! 한편의 시상이 떠오를 수 있게 하는 이 곳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

간절곶 등대

- **신설점등** 1920. 3. 26
-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28-1
- **구 조** 백색8각형 콘크리트조 17m(평균해면상 35m)
- **등 질** 백섬광 15초 1섬광(FIW 15s)
- **광달거리** 26해리(약 48㎞)
- **웹사이트** http://ulsan.mltm.go.kr(울산지방해양항만청)
- **연 락 처** ☎ 052-239-6313

새천년의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동북아 대륙에서 새천년을 가장 먼저 맞이한 곳, 간절곶 등대! 해안을 따라 느린 경사의 언덕이 있고, 그 동쪽으로 언덕에 그림같은 등대가 서 있다. 그 앞에는 남태평양과 동해안으로 향하는 뱃길이 환하게 열려 있고, 무거운 짐을 실은 거대한 화물선들은 울산항에 정박해 있다. 이곳 간절곶 등대는 1920년 3월 처음 불을 밝힌 이래 80여년을 하루같이 울산항과 동해를 드나드는 선박들의 항로를 비추었고, 새천년을 맞아 더 밝게! 더 멀리! 비출 수 있도록 등탑(17m) 개량과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전망대, 홍보관 및 잔디광장 등의 해양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친숙한 등대가 되었다.

간절곶등대는 국립천문대와 새천년준비위원회가 "2000년 1월 1일 오전 7시31분26초" 새천년의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로 공포함에 따라 더욱 유명해진 등대가 되었다.

이처럼 간절곶이 새해 첫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이들을 위해 등대 주변에는 장승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등대와 키재기를 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소망우체통', '모녀상'과 '어부상' 등의 석재 조각품, '기둥' '둘과 하나의 논리' 등의 철재 조각품이 곳곳에 세워져 색다른 해양문화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오시는길

대중교통

- ▶ 삼산 → 공업탑 → 간절곶 (약 50분)
- ▶ 부산, 해운대 → 간절곶 (약 50분)

독도 등대

- **신설점등** 1954. 8. 10
- **소 재 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30
- **구 조** 백색원형 콘크리트조 15m(평균해면상 104m)
- **등 질** 백섬광 10초 1섬광(FIW 10s)
- **광달거리** 25해리(약 46km)
- **웹사이트** http://pohang.mltm.go.kr(포항지방해양항만청)
- **연 락 처** ☎ 054-791-1161

대한민국 동쪽땅 끝 우리 땅을 지키는 **파수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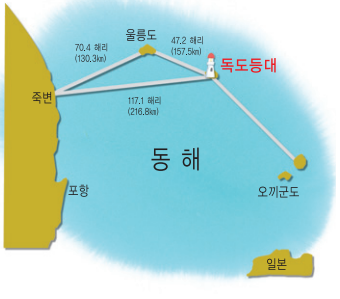
바다 한복판에 두 기둥이 우뚝 서서 위풍당당하게 바다를 바라보는 웅장한 모습의 독도! 거기에 우리의 동쪽 바다를 비추는 독도등대가 서있다. 독도는 망망대해 위에 깍아지른 바위 봉우리로 규모는 작지만 그 자태는 웅장하기 그지없다. 코끼리를 닮은 독립문바위와 주변에 크고 작은 암봉, 가제바위와 탕건봉 등은 바다 한가운데 펼쳐진 기암 전시장처럼 보인다. 바다와 하늘과 조화를 이룬 독도의 자연 경관은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한다. 이 섬은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약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

독도등대는 동쪽 우리영토 끝부분을 표시하고 있으며 주변 해역에 항해하는 선박 또는 조업어선의 안전을 위하여 1954년 8월에 신설점등 되었다. 1998년 12월에 시설확장과 등대 기능을 보강하여 등대원이 상주하는 유인등대화되었다. 현재의 독도등대는 백색원형콘크리트 구조로(높이15m) 백색 불빛이 10초에 한번 깜박이며, 46km의 먼곳까지 불빛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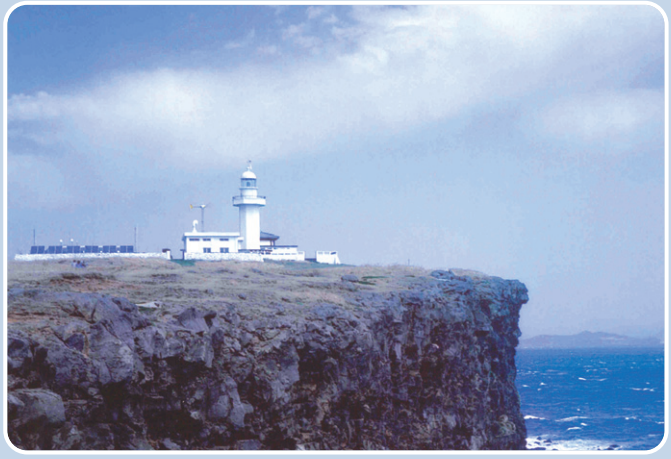
찾아오시는길

여객선

- ▶ 묵호여객선터미널 → 울릉도 (2시간 30분, 1일 1회 왕복)
- ▶ 포항여객선터미널 → 울릉도 (3시간, 1일 1회 왕복)
- ▶ 울릉도(도동) → 독도 (2시간 50분, 1일 2회 왕복)



마라도 등대



- **신설점등** 1915. 3. 1
- **소 재 지**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42
- **구 조** 백색8각형 콘크리트조 16m(평균해면상 51m)
- **등 질** 백섬광 10초 1섬광(FIW 10s)
- **광달거리** 26해리(약 48㎞)
- **웹사이트** http://jeju.mltm.go.kr(제주해양관리단)
- **연 락 처** ☎ 064-792-8507

바다를 향한 그리움에 별조차 눈길이 머무는 곳!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는 산이수동에서 뱃길로 30여분을 가면 만날 수 있다. 태풍이라도 불면 파도에 휩쓸려 버릴 것 같은 나즈막한 섬 마라도는 여행객에게는 국토 최남단이라는 매력을 낚시인들에게는 우리나라 벵에돔 낚시의 최고 포인트로써 사랑받고 있는 섬이다. 푸른 잔디밭 끝에 걸쳐 바다를 향하고 있는 마라도 등대는 동중국해와 제주도 남부해역을 오가는 선박들이 육지초인표지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희망봉' 등대이다.

일제 강점기인 1915년 3월 신설점등된 마라도 등대는 1987년 3월 새로 개축하였고 하얀색의 8각형 콘크리트 구조로 높이는 16m이다. 등질은 10초에 한번씩 반짝이고 약 48㎞ 거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마라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 마라도 관광은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임대하여 한 바퀴를 도는데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총 학생수가 4명인 가파 초등학교 마라 분교와 국토 최남단비, 슬픈 전설이 서려있는 애기업게당, 장군 바위 등이 있고 모 CF에서 "자장면 시키신 분"에 힘입어 생겨난 해물자장면집, 그리고 초콜릿 박물관 등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한다.

찾아오시는길

대중교통

▶ 제주국제공항(제주항 여객터미널)
→ 제주 시외버스터미널(30분)
→ 산이수동 유람선선착장
또는 모슬 포항
→ 마라도(약 35분, 1일 4회)
→ 마라도등대(도보 10분)

소매물도 등대

- **신설점등** 1917. 8. 5
- **소 재 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 65
- **구 조** 백색원형 콘크리트조 16m(평균해면상 91m)
- **등 질** 백섬광 13초 1섬광(FIW 13s)
- **광달거리** 26해리(약 48㎞)
- **웹사이트** http://masan.mltm.go.kr(마산지방해양항만청)
- **연 락 처** ☎ 055-641-3943

동양의 나폴리 통영! **통영의 꽃** 소매물도등대...

경남 통영시에 속한 가장 아름다운 섬인 매물도는 해금강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 개의 섬인 매물도, 소매물도, 등대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매물도란 이름은 말꼬리를 닮은 섬이라 하여 마미도에서 매미도, 매물도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한다.

소매물도라 하면 일반적으로 등대섬을 연상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등대섬 정상에는 높이 16m의 하얀등대가 주변 절경과 조화를 이루며 우뚝 서 있다. 소매물도등대는 1917년 신설점등 되어 48km 거리까지 빛을 비추며, 90여년 동안 우리나라 남해안을 지나는 선박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소매물도와 등대섬은 하루 두 번 썰물 때가 되면 바닷길(몽돌밭)이 열리는 모세의 기적이 연출되며, 이 때를 맞추면 걸어서 등대섬으로 오고갈 수 있다.

망태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등대섬, 새하얀 암벽과 갖가지 형상의 바위들, 눈이 시리도록 새파란 하늘과 바닷물, 멀리 보이는 아스라한 수평선, 들꽃이 흐드러지게 핀 초원과 우뚝 솟은 등대의 어울림, '서불과차(徐市過此)'라는 글이 써 있다는 글씽이굴은 형용하기 어려운 감동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찾아오시는길

여객선

▶ 통영여객선터미널 또는 거제저구항)
→ 소매물도행(약 40분, 1일 4회)

▶ 소매물도항 → 도보(약 30분)
→ 소매물도등대

소청도 등대

- **신설점등** 1908. 1. 1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307
- **구 조** 백색원형 콘크리트조 18m(평균해면상 83m)
- **등 질** 백섬광 40초 4섬광(FI(4)W 40s)
- **광달거리** 20해리(약 37km)
- **웹사이트** http://www.portincheon.go.kr(인천지방해양항만청)
- **연 락 처** ☎ 032-836-3104

푸른 바닷물이 이국적인 **낭만의 섬** 소청도!

멀리서 섬을 바라볼 때 울창한 산림이 검푸르고 이 검푸른 색깔이 마치 눈썹 먹 색깔과 같다 하여 이를 푸른섬(검 푸른섬)이라 하여 청도(靑島)라 불렀다고 한다.

소청도와 대청도의 지명이 고려 인종 원년의 기록에 있으며, 원래 "푸른섬"이라는 것을 그 음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쓰게 된 것이 포을도(包乙島)이고, 그 뜻에 따라 한자로 청도(靑島)라 표기되었으며, 중국을 오가는 뱃사람들에 의해 항해중의 표적인 "푸른섬(포을도)"으로 불려지다가 오늘날 소청도(小靑島)가 되었다.

소청도 등대는 1908년 신설점등 하였으며, 섬의 서단 83m 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어 청정바다를 내려다보는 재미와 갯바위 낚시를 즐기는 이들의 발길이 멈추지 않는 곳, 갓 잡아 올린 해산물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푸른 바다 낭만의 섬이다.

찾아오시는길

대중교통

▶ 12, 24번 버스 이용
▶ 동인천역 → 연안부두(약 10분)

여객선

▶ 연안부두 → 소청도
※ 1일 2회 쾌속선(3시간 30분 소요)
▶ 소청도선착장 → 등대(약 10분)
(약 10분 등대차량이용)

속초 등대

- **신설점등** 1957. 6. 8
- **소 재 지**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7
- **구 조** 백색원형 콘크리트조 28m(평균해면상 66m)
- **등 질** 백섬광 45초 4섬광(FI(4)W 45s)
- **광달거리** 19해리(약 35㎞)
- **웹사이트** http://donghae.mltm.go.kr(동해지방해양항만청)
- **연 락 처** ☎ 033-633-3406

동해바다와 설악산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

속초란 명칭에 대하여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영조36년(1760년)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로 조선시대 양양도호부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한 동리였다. 이는 영금정(靈琴亭)옆에 솔산이 있었는데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 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한 풍수지리적으로 속초(束草) 지형이 와우(臥牛)형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으로써, 소가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므로,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도 한다.

속초항은 예부터 양양군의 문호(門戶)로 알려져 있었으며, 근해에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인해 어민의 이주가 점차 증가되면서 어항으로 형성되었다. 1905년 동해 연안항로가 개설되자 기항지로써 기선(汽船)이 입 · 출항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말부터 본격적인 축항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1957년에 속초등대를 신설 ·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06년 12월 높이 28m 원형콘크리트조의 새로운 등탑 신축과 더불어 등대전망대, 홍보실 등 해양문화공간이 조성되어 동해바다와 설악산, 속초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관광명소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찾아오시는길

대중교통

▶ 강릉고속버스터미널 → 속초항 → 속초등대(약 1시간 10분)

어청도 등대

- 신설점등 1912. 3. 1
- 소 재 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산364
- 구 조 백색원형 콘크리트조 15m(평균해면상 61m)
- 등 질 백섬광 12초 1섬광(FIW 12s)
- 광달거리 26해리(약 48㎞)
- 웹사이트 http://gunsan.mltm.go.kr(군산지방해양항만청)
- 연 락 처 ☎ 063-466-4411

풍랑의 피난처, 중국 산둥반도 닭소리가 들리는 곳..

어청도는 군산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72㎞, 중국 산둥반도와는 약 300㎞의 거리로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중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 영해기선 기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어청도는 푸를 청(靑)자를 쓸 만큼 물이 맑으며, BC 202년경 중국의 한고조(漢高祖)가 초항우(楚項羽)를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하자 패왕 항우는 자결하고, 재상 전횡이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망명길에 올라 돛단배를 타고 서해를 목적없이 떠다니던 중 이 섬을 발견하였다고 전한다.

이곳에 일본이 대륙진출을 위해 1912년 3월 등대를 신설 점등하게 되었다. 건축당시 등탑의 조형미를 살리기 위하여 상부를 전통 한옥의 서까래 형상으로 재구성하여 홍색 등롱과 하얀 등탑 그리고 세월을 느낄수 있는 돌담이 어우러져 보존가치로 손색이 없다.

어청도등대에는 해질녘 주변의 해송과 어우러진 그림같은 풍경이 있어 등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감탄사를 연발할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찾아오시는길

여객선

▶ 군산시외버스터미널
→ 군산항 여객터미널(30분 소요)
→ 어청도선착장(2시간 30분)
→ 어청도등대(도보 20분)

영도 등대

- 신설점등 1906. 12. 1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1054
- 구 조 백색원형 콘크리트조 35m(평균해면상 87m)
- 등 질 백섬광 18초 3섬광(FI(3)W 18s)
- 광달거리 24해리(약 45㎞)
- 웹사이트 http://www.portbusan.go.kr(부산지방해양항만청)
- 연 락 처 ☎ 051-405-1201

가족과 연인이 함께 체험하는 해양관광명소

부산시 영도구 태종대에 위치한 영도등대는 1906년 12월에 설치되어 지난 100여년 동안 부산항의 길목에서 영롱한 불빛을 밝혀왔으나 시설 노후로 2004년에 새로운 등대 시설물로 교체되어 부산지역의 해양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새로 건립된 영도등대는 등대시설, 예술작품 전시실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등 3개동(연면적 72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대시설은 기존 등대와 같이 백색의 원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높이가 35m이며 불빛은 45km까지 나아간다. 전시실(see & sea)은 시민들과 방문객을 위해 미술작품을 소개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연사 박물관은 등대 바로 옆 신선바위 등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과 백악기 공룡서식지로 추측되는 이곳을 기념하는 공룡화석 등을 전시하고 있다.

영도등대에 오면 등대와 바다, 천혜의 절경 그리고 덤으로 해양갤러리에서 미술작품도 감상할 수 있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친숙한 해양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것이며 영도등대는 새천년의 빛을 밝히며 해양부국실현을 향한 힘찬 도약의 선봉장이 될 것이다.

※영도등대는 처음 목장이라는 뜻의 목도(牧島)등대로 불리었으나 당시 그곳에서 기르던 말이 비호와 같이 빨라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절영도(絕影島)등대라 불리었다. 이후 1974년 행정 편의상 '절' 자를 빼고 영도등대로 개명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찾아오시는길

대중교통

- ▶ 부산역(88번, 101번 버스 이용)
- ▶ 부산역 → 태종대공원(약 30분)
  → 영도등대(관광열차 약 10분)

유람선

- ▶ 해양대학교 → 하리
  → 등대선착장(약 30분)

오동도 등대

- 신설점등 1952. 5. 12
- 소 재 지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산1-7
- 구 조 백색8각형 콘크리트조 27m(평균해면상 61m)
- 등 질 백섬광 10초 1섬광(FIW 10s)
- 광달거리 25마일(약 46㎞)
- 웹사이트 http://yeosu.mltm.go.kr(여수지방해양항만청)
- 연 락 처 ☎ 061-662-3999

동백꽃과 바다 향이 묻어나는 오동도 등대...

오동도[梧桐島]는 멀리서 볼 때 마치 오동잎처럼 보이고, 오동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다 하여 오동도라 했다. 또한 신이대(화살을 만드는 대나무)가 섬 전체에 자생하여 죽도라고도 부른다.

오동도등대는 지난 1952년 5월 12일 처음 불을 밝힌 후 2002년에 높이 27m의 백색 8각형 콘크리트조로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람객은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8층 전망대에서는 여수, 남해, 하동 등 남해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등대 옆 사무실(2층)에 있는 홍보관에서는 등대와 바다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오동도 섬 전체는 완만한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구에 모형거북선과 판옥선, 세계박람회의 여수유치를 위해 세워진 2012세계박람회 홍보관, 음악분수 등이 있고 남쪽 해안가 쪽으로는 소라바위, 병풍바위, 지붕바위, 코끼리바위, 용굴 등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오동도등대에 오르는 길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성한 동백나무가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11월경에 빨간 꽃망울을 터뜨려 겨우내 피어 3월경에 절정을 이룬다.

찾아오시는길

대중교통

▶ 여수역
→ 오동도입구(버스 5분, 도보 15분)
→ 오동도등대(도보 5분)

▶ 여수시외버스터미널
→ 휴게소정류장(버스 10분)
→ 오동도입구(도보 10분)
→ 오동도등대(도보 5분)

오륙도 등대

- 신설점등 1937. 11. 1
- 소 재 지 부산시 남구 용호동 941
- 구 조 백색원형 콘크리트조 27.5m(평균해면상 53m)
- 등 질 백섬광 10초 1섬광(FIW 10s)
- 광달거리 22해리(약 40㎞)
- 웹사이트 http://www.portbusan.go.kr(부산지방해양항만청)
- 연 락 처 ☎ 017-564-2062

부산항의 **역동적 모습**과 **아름다운 야경**을 한 눈에...

오륙도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5개 또는 6개 섬으로 보여 오륙도라는 이름이 유래됐다. 오륙도 밭섬에 등대가 개설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37년 11월이다.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되고 나서 부산의 관문인 오륙도 앞으로 배들이 드나들기 시작하자 항구를 오가는 선박들의 길잡이가 필요해 등대가 세워졌다. 이 등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제 항구인 부산항을 드나드는 각종 선박이 반드시 지나야 하기 때문에 오륙도와 더불어 부산항의 상징으로 통한다.

오륙도 등대는 당초 6.2m 높이로 건립됐다. 그러나 등대가 너무 낮아 보수가 필요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1998년 12월 등탑을 27.5m로 높여 웅장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등대 내부에는 우리나라 주요 등대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 전시실을 갖췄으며, 부산항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있다. 여기에 올라서면 활기찬 부산항의 역동적인 모습과 아름다운 야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찾아오시는길

대중교통

▶ 부산역
→ 용호동종점하차
→ 마을버스(약 40분)
→ 낚시어선
→ 등대선착장 또는 오륙도 방파제(약 15분)

옹도 등대

- 신설점등 1907. 1. 1
- 소 재 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510
- 구 조 백색8각형 콘크리트조 14.7m(평균해면상 75m)
- 등 질 백섬광 15초 1섬광(FIW 15s)
- 광달거리 26해리(약 48㎞)
- 웹사이트 http://daesan.mltm.go.kr(대산지방해양항만청)
- 연 락 처 ☎ 041-675-1317

100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충남 유일의 유인등대

옹도등대는 1907년 1월 인천 · 평택 · 대산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세워진 충남 유일의 유인등대이다. 등대하면 떠오르는 막연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간직한 옹도는 2007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옹도의 명칭은 그 모양이 옹기(甕器)와 같이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정상에 커다란 등대가 설치되어 있어 일명 등대섬으로도 불린다.

안흥외항(신진도)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지나면 충남 유일의 유인등대인 옹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약 17,000㎡의 작은 섬인 이곳에는 등대를 지키는 등대원만이 살고 있다. 선착장을 따라 등대로 올라가는 오솔길에는 동백나무 군락이 산등성이를 따라 밀집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하며, 등탑에서 내려다보이는 서해의 해넘이를 보고 있노라면 자연의 아름다움에 숙연함마저 깃들게 한다.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옹도는 해양문화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8~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자연친화적인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해양문화의 메카로 변모할 계획이다.

찾아오시는길

대중교통

▶ 태안 → 안흥항(1일 6회, 30분 소요)
→ 옹도(용선 30분)

자가용

▶ 서해안고속도로(서산 및 해미나들목)
→ 태안 → 안흥항 → 옹도(용선 30분)

우도 등대

- 신설점등 1906. 3. 1
- 소 재 지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337
- 구 조 백색원형 콘크리트조 16m(평균해면상 140m)
- 등 질 백섬광 20초 1섬광(FIW 20s)
- 광달거리 27해리(약 50㎞)
- 웹사이트 http://jeju.mltm.go.kr(제주해양관리단)
- 연 락 처 ☎ 064-783-0180

우도의 풍경과 함께 등대 테마파크가 있는 곳...

우도란 명칭은 조선조 숙종 23년(1697년)에 우도에 목장이 설치되고 부터다. 「그것은 이형상(李衡祥)의 《南宦博物》 〈誌島〉條에 卯方(동쪽)에는 牛島가 있는데, 모양은 臥牛(누운소)와 같고 旌義(정의)경계의 別防(별방)·水山 兩鎭 사이에 있으며, 수목은 없고 오직 닥나무가 나는데, 今上(肅宗) 乙丑年에 목장을 신설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주 성산포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3.8Km 지점에 위치한 우도는 제주도 연안에 산재하는 부속도서 중 가장 큰 섬이다. 섬의 형태가 소가 드러누워 머리를 내민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우도(牛島)라 불리는 이곳에 1906년 3월 제주에서는 최초로 등대가 신설 점등되어 100여 년간 운영하다 지난 2003년 12월 높이 16m 원형콘크리트조의 새로운 등탑 신축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로 등대를 테마로 한 등대공원을 조성하여 해양관광 상품으로 개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홍보·전시실 및 항로표지 3D 체험관과 세계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등대 등 우리나라 및 세계의 유명한 등대 모형 17점을 전시하여 관광객의 눈과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다.

찾아오시는길

대중교통

▶ 제주국제공항(제주항여객터미널)
→ 제주시외버스터미널(30분)
→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 우도선착장(20분)
→ 우도등대(15분 버스투어, 자전거, 오토바이 이용가능)

울기 등대

- 신설점등 1906. 3. 24
- 소 재 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산 905-5
- 구 조 백색8각형 콘크리트조 24m(평균해면상 53m)
- 등 질 백섬광 10초 1섬광(FIW 10s)
- 광달거리 26해리(약 48㎞)
- 웹사이트 http://ulsan.mltm.go.kr(울산지방해양항만청)
- 연 락 처 ☎ 052-251-2125

울창한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절경이 있는 곳...

태백산맥이 뻗어내려 마지막 동으로 그 끝머리가 깊숙이 방어진 반도에 꼬리를 감춘 곳.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해안의 절경을 이루고 있어 "제2의 해금강"이라고 불리는 울산의 동쪽 끝에 울기등대가 건립된 것은 1906년 3월 높이 6m의 백8각형 등탑이 세워지면서 부터이다. 조선시대 말을 기르던 목장이었던 이곳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해송림이 자라 하늘을 감싸 안아 등대불이 보이지 않게 되자, 1987년 12월 기존 위치에서 50m정도 옮겨 촛대모양의 아름다운 등탑(24m)을 새로이 건립하여 동해안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등대가 대왕암공원 내에 위치하여, 등대로 가는 길의 가장자리에는 타래붓꽃, 수선화, 해당화, 해국 등 각종 야생화가 찾는 이를 반기며, 매년 4월이면 왕벚나무가 만개하여 터널과 같은 장관을 이룬다. 등대를 지나 계단을 내려서면 문무대왕비(妃)의 호국영령이 서려 불그스름한 기운을 띤 대왕암이 청자빛 하늘과 코발트빛 바다를 그은 수평선 위로 살짝 돋아나면서 절경을 자아낸다.

찾아오시는길

대중교통

▶ 시외/고속터미널 → 남목 → 울기등대(약 50분)

팔미도 등대

- 신설점등 1903. 6. 1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374
- 구 조 백색원형 콘크리트조 26m(평균해면상 87m)
- 등 질 백섬광 10초 1섬광(FIW 10s)
- 광달거리 23해리(약 42㎞)
- 웹사이트 http://www.portincheon.go.kr(인천지방해양항만청)
- 연 락 처 ☎ 032-831-4925

자연경관이 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유인등대!

두 개의 섬이 마치 여덟 팔(八)자처럼 양쪽으로 뻗어 내린 꼬리와 같아 팔미도(八尾島)라 불려졌다고 한다. 김정호의 "청구도"에는 "팔미(八未)"로, "대동여지도"에는 "팔산(八山)"등으로 불리어 왔고, 인천 사람들에게는 "팔미귀선(八尾歸船)", 즉 낙조에 팔미도를 돌아드는 범선(帆船)의 자취가 아름다워 인천팔경(仁川八景)의 하나로 꼽혔던 해상 경승지(景勝地)이다.

팔미도 등대는 1903년 6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점등되어 인천항의 길잡이 역할을 하다가 6.25때는 인천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인 등대이기도 하다.

인천항을 출발하여 인천대교를 지나 남쪽으로 13.5Km, 해발 87m 작고 아름다운 등대섬 팔미도는 자연경관이 빼어나 역사와 문화, 관광 등 천혜의 비경으로 인천지역의 해상관광 자원이다.

찾아오시는길

대중교통

▶ 12, 24번 버스 이용
▶ 동인천역 →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약 30분)

선박임대

▶ 연안부두 → 팔미도 (20분 소요)

호미곶 등대

- 신설점등 1908. 12. 20
- 소 재 지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21
- 구 조 백색8각형 연와조 26.4m(평균해면상 31m)
- 등 질 백섬광 12초 1섬광(FIW 12s)
- 광달거리 27해리(약 50km)
- 웹사이트 http://pohang.mltm.go.kr(포항지방해양항만청)
- 연 락 처 ☎ 054-284-9814

한반도 최동단 호랑이꼬리, 천하의 명당 호미곶

호미곶등대는 한반도 최동단에 위치해 일출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호미곶 (虎尾串)' 에 위치해 있다. 16세기 조선 명종때 풍수지리학자인 남사고는 한반도가 호랑이 모습이라며 백두산은 호랑이 코, 호미곶은 호랑이 꼬리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천하 명당으로 꼽았다.

광무5년(1901) 9월 9일 일본수산실업전문대학 실습선(快應丸)이 대보 앞바다를 항해하다가 암초에 좌초되어 승선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1908년 12월 호미곶등대가 건립됐다.

이 등대는 8각 연와조로 철근없이 벽돌로만 지어졌으며 내부는 6층으로, 등탑높이는 26.4m이다. 각층 천정에는 대한제국 황실 문양인 '오얏꽃(李花文)' 이 새겨져 있고 출입문과 창문은 고대 그리스 신전 건축의 박공양식으로 장식돼 있다. 또 상부는 돔형 지붕 형태에 8각형 평면이 받치고 있으며 하부로 갈수록 점차 넓어진다. 1982년 경상북도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100여년의 등대역사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여 등대 바로 옆에 1985년 국내 유일의 국립등대박물관은 건립 운영해 왔으나, 소장품이 많아지고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2002년부터 2년간 본관 신축을 시작으로 기획전시관 건립, 테마공원 개장 등 종합박물관으로 거듭나면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찾아오시는길

대중교통

- ▶ 200번 버스 이용
- ▶ 포항시외버스터미널 → 구룡포 (약 50분)
- ▶ 구룡포 → 대보행 순환버스 이용 (약 30분)

홍도 등대

- 신설점등 1931. 2. 1
- 소 재 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5-2
- 구 조 백색4각형 콘크리트조 10m(평균해면상 89m)
- 등 질 백섬광 20초 3섬광(Fl(3)W 20s)
- 광달거리 24해리(약 45㎞)
- 웹사이트 http://mokpo.mltm.go.kr(목포지방해양항만청)
- 연 락 처 ☎ 061-246-3888

일출과 석양이 환상적인 명품등대

홍도마을은 1480년경 김해김씨 김태선이 고기잡이 왔다가 풍랑을 만나 이곳으로 피신하여, 살다보니 사람이 살만하고 풍경이 좋아 정착하였다고 한다. 홍도에는 향기가 10리까지 풍긴다는 대엽풍란 등 274종의 희귀식물 그리고 230여종의 동물이 살고 있다. 1965년부터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암괴석 틈새에 자생하고 있는 500여년 된 분재 소나무, 석화, 굴, 독립문 바위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다도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홍도등대는 목포에서 약116km, 대흑산도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목포항과 서해안의 남북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의 뱃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등대 불빛은 20초에 2번 반짝이며, 무려 45km 떨어진 곳까지 불빛이 전달된다. 등탑은 불과 10여미터 높이이나 워낙 높은곳에 세워져서 멀리서도 한 눈에 들어온다. 홍도등대는 그 자체가 명품(등대문화유산 제3호)이다. 보통의 원주형 등탑과 달리 사각형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곳 홍도등대에서 노을을 감상하는 것이 포인트, 절묘하게 어울 어진 주변의 작은섬에 걸리는 저녁 노을은 아름답다. 또 주변자연경관과 새벽녘의 안개와 어우러져 일출을 맞이할 때 경이로움까지 느껴진다. 그래서 홍도등대에서 맞는 일출과 석양은 홍도등대를 왜 명품등대라 하는지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찾아오시는길

여객선

▶ 목포항 여객터미널
→ 홍도1구(2시간 30분, 1일 2회)
→ 홍도등대(용선 30분)

바다의 날 10년, 해양강국 1000년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바다헌장

바다는 뭇 생명의 근원이자 생존의 토대이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어야 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다.

바다는 한민족 번영의 기틀이며,
세계의 바다는 우리 겨레의 원대한 꿈과 이상이 펼쳐질 터전이다.

우리는 바다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 슬기롭게 가꾸며 풍요로운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 바다를 통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모두는 생명의 바다, 풍요의 바다, 공생의 바다를 이루기 위해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바다는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는 바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간다.

하나, 바다는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는 바다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하나, 바다는 풍요의 원천이다. 우리는 첨단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육성한다.

하나, 바다는 우리의 미래다. 우리는 바다인재를 기르고 원대한 바다경영을 통하여 세계일류의 해양력을 키운다.

하나, 바다는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이다. 우리는 해양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하고 드넓은 대양에서 우리의 웅지를 펼친다.

하나, 바다는 민족의 기상이다. 우리는 진취적인 해양사상을 북돋우고 새로운 해양문화를 일궈낸다.

하나, 바다는 평화의 마당이다. 우리는 바다의 평화적 이용과 보전을 통해 국제사회에 이바지한다.

MEMO

MEMO

MEMO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 16경

인쇄일 _ 2008. 6
발행일 _ 2008. 6
발행처 _ 국토해양부(www.mltm.go.kr)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TEL : 02-2110-8607
편 집 _ 해양교통시설과